

제121회

3월 12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21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3월 12일 발명장 ...○
- ... 려관 연구실에서 개 ...○
- ... 최되었다. 매월 둘째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교실은 이 달에도 1 ...○
- ... 백여명이 참석하여 ...○
- ... 상황을 이루었다. 이 ...○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 발명가 이해남 씨

'발명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발명가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발명가가 대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발명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첨단산업은 이런 필요와 발명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해 왔다.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도 그중의 하나다.

자동차의 창문을 열려면 기존에는 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어야

했다. 여기서 한단계 더 발전한 것이 파워윈도우라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창문이 열리고 닫히니 참 편하기도 하다. 이런 편리함 뒤에는 항상 숨어 있는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발명가 이해남.

이씨가 이 발명을 하게 된 동기는 주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평범한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동차에 파워윈도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데는 유리를 움직일수 있는 모터가 필요하다. 그 모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경승용차의 경우는 내부가 적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여유가 많지 않다.

또한, 모터를 문의 외부에 설치할 경우는 돌출 부분은 감싸기 위해서 별도의 카바를 조립해야 한다. 이는 보기도 흉할뿐 아니라 불편하다.

발명가 이씨는 이 불편함을 한꺼번에 해소하고자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는 모타의 승강장치, 손잡이 그리고 팔받침 이 세가지가 모이면 무엇인가 될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맨 처음엔 자기의 설계를 나무에다 그대로 옮겨 시제품을 만들어 보았다.

곧바로 성공이었다.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된 것이었다. 발명가 이씨는 그날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날 발명교실에서는 ...○
- ... 발명가인 이해남씨의 ...○
- ... 성공사례 발표와 황 ...○
- ... 종합 변리사의 「산업 ...○
- ... 재산권제도 에 대한 ...○
- ... 해설이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 ...○
- ... 를 간추려 소개 한 ...○
- ... 다. <이두성 記> ...○



로 이 내용을 특허청에 출원을 하였다. 등록을 받은 것은 당연하였다.

이씨의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92년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하여 전시회 기간동안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93년에는 미국의 피스버그 전시회에 참가 하였을 뿐 아니라, 뉘른베르그 전시회에 참가 했을때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아 국위를 선양하는 기쁨도 누렸다.

국내시장에서도 호응이 좋아 국내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인 H사회에도 2개사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주고 매출액의 2%를 받는 경제적인 여유도 얻었다고 한다. 노력으로 흘린 땀이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이 만사형통인 것만은 아니었다. 모자동차사에서 이씨의 권리를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소송중에 있다고 한

다.

그렇다고 범정싸움에만 연연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발명이란 거대한 자원 앞에 앞으로의 발전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이 최고의 무기이다. 발명가 이씨를 이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명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발명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발명가가 대접받은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한다.

‘더하기도 발명이고, 빼기도 발명이다.’라는 말처럼, 모터의 승강장치와 손잡이 그리고 팔받침 이 세가지를 더하니 훌륭한 발명품이 되었다.

우리 속담에도 1석3조라는 말이 있다.

발명가 이씨는 발명품을 개

발 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국내 전시회 등을 통하여 국위도 선양하고 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하였으니 1석3조가 아니라 발명만세라고 하는게 더 어울릴 듯 싶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불편하고 고쳐야될 게 많다. 그래서 더 많은 발명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발명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발명가들에게 갈채를 보낸다. <♣>

**의식개혁 실천이
국제화의 첫걸음**